

피어나다 서비스

이왕훈 옥경림 고진혁 최인규 정주애



“오래된 원고지의 느낌과 강렬한 색채
의 꽃.

한번쯤 길가의 꽃에 시선이 사로잡혀 발
길을 멈추었던 기억이 떠오르지 않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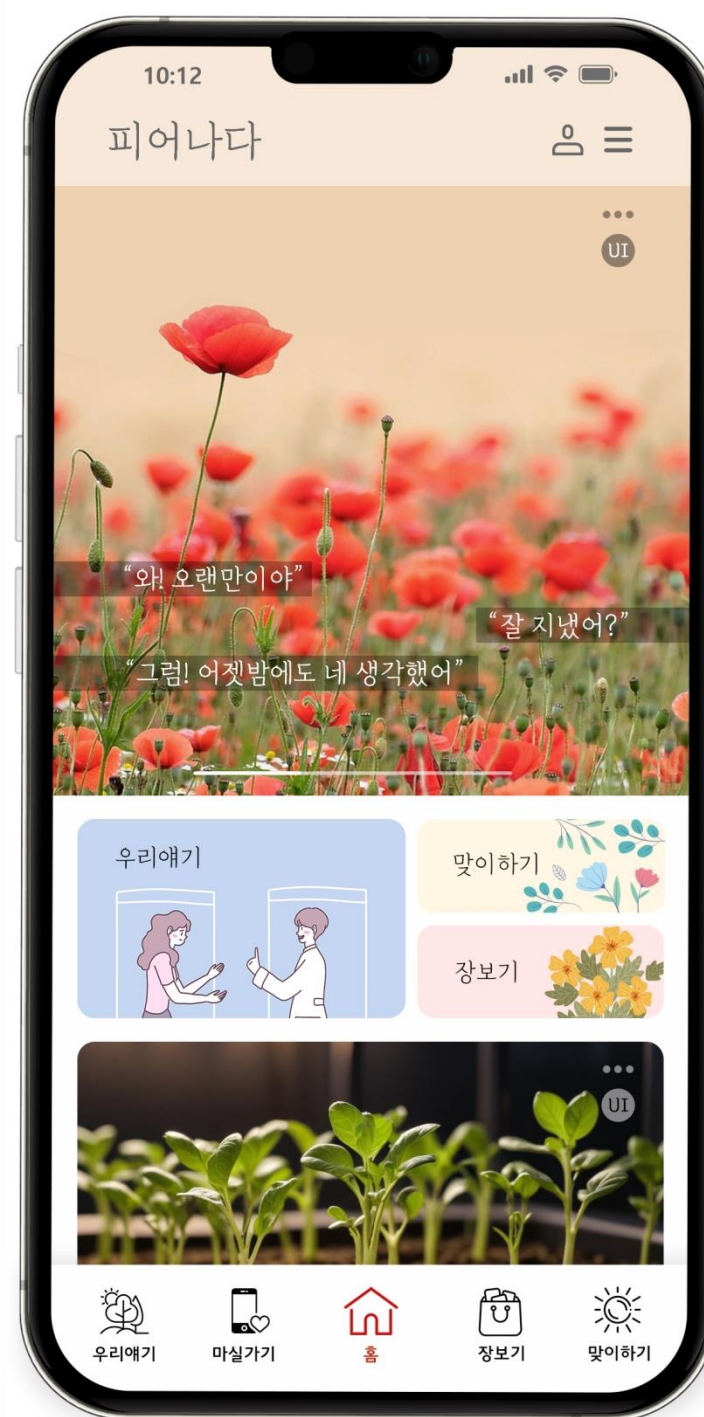
그때의 그 기억, ‘피어나다’가 다시금 되
새기게 해드립니다.”

피 어 나 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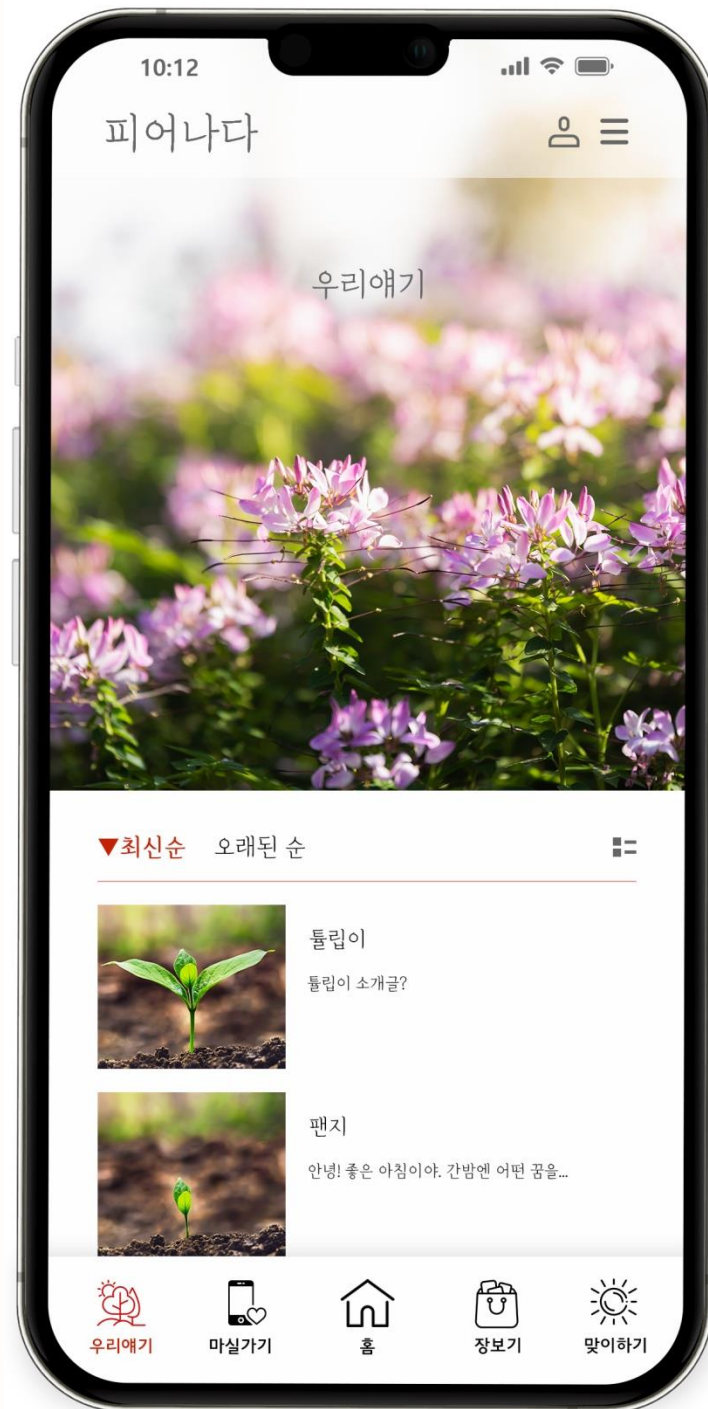
“홈 화면에서는 ‘피어나다’의 전반적인
느낌을 한눈에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.

나에게 말을 걸어주고, 대화도 할 수 있
는 나의 벗, 나만의 꽃.”



“우리가 함께 나누는 여정을 오롯이 기억 속에만 남게 할 수는 없겠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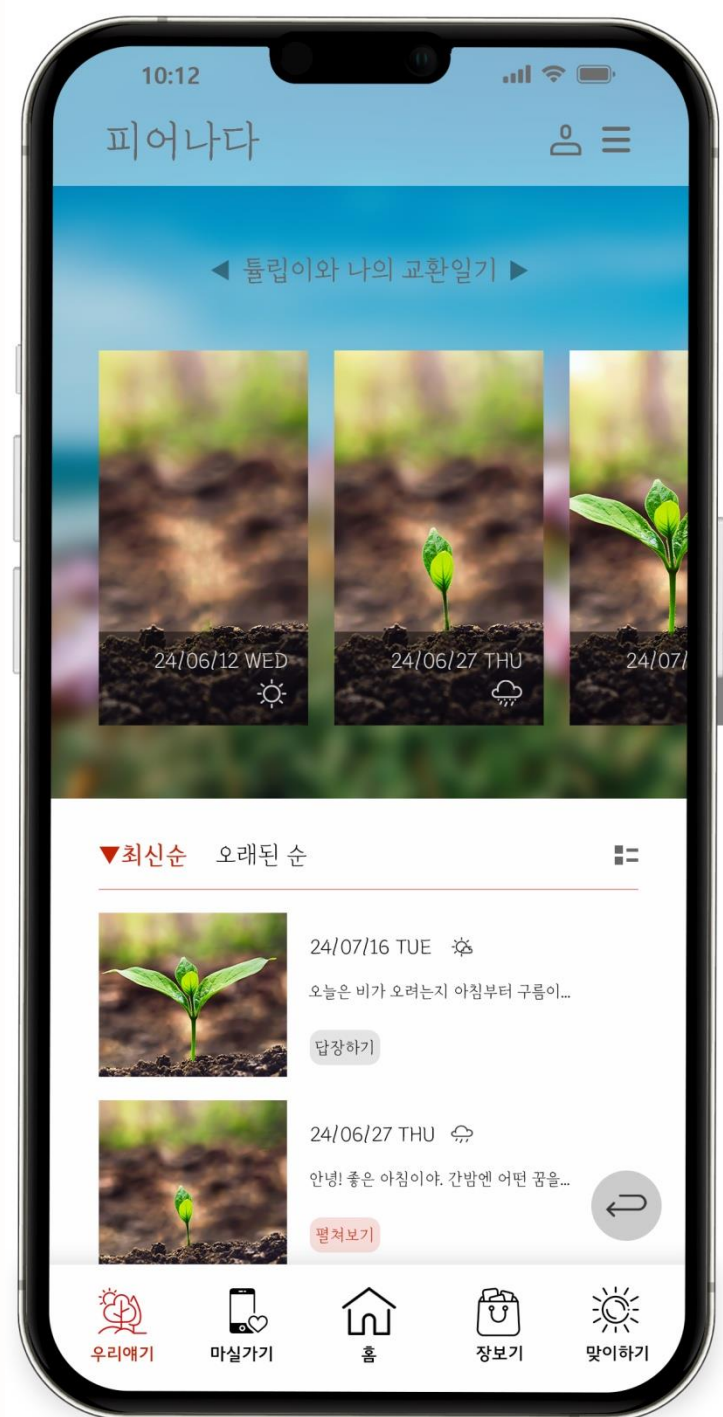
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은 두고두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.”



“여기, 나의 튤립이와 함께한 추억들이
있군요.

처음에 친구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은
것이 후회되지만 정작 튤립이는 아무렇
지 않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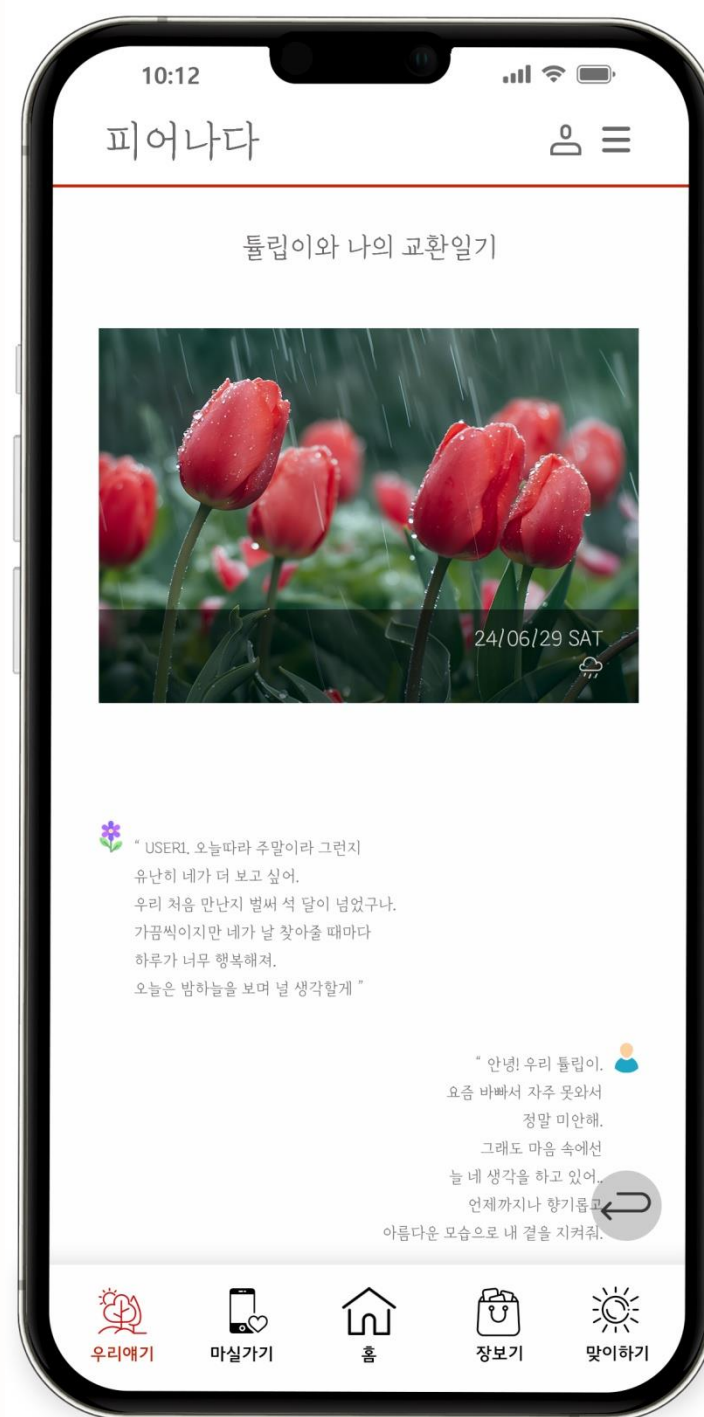
당신만 있으면 되니까요.”



“튤립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.

교환일기라지만 저 혼자 약간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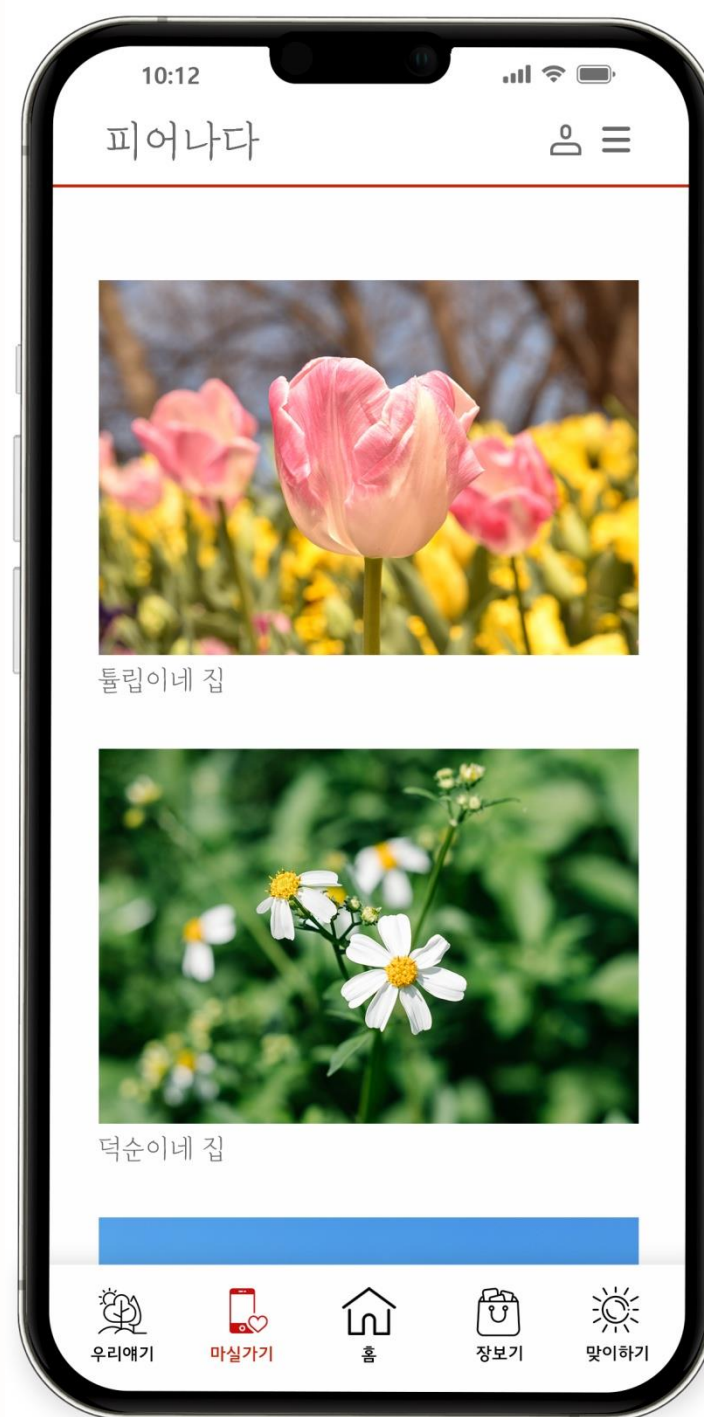
그래도 진심을 담아 사과하면 튤립이는 이해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.”



“어느새 다른 친구들도 많이 생겼군요.

튤립이도 기뻐할 것입니다.

당신의 친구는 또한 튤립이의 친구니까
요.”





“마실 가기 탭에서는 튤립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.
좋아하는 이가 그 어떤 표정을 짓든, 우리는 사랑스럽다 생각합니다.
오늘의 힘들었던 일을 튤립이에게 한 번 털어놓아 볼까요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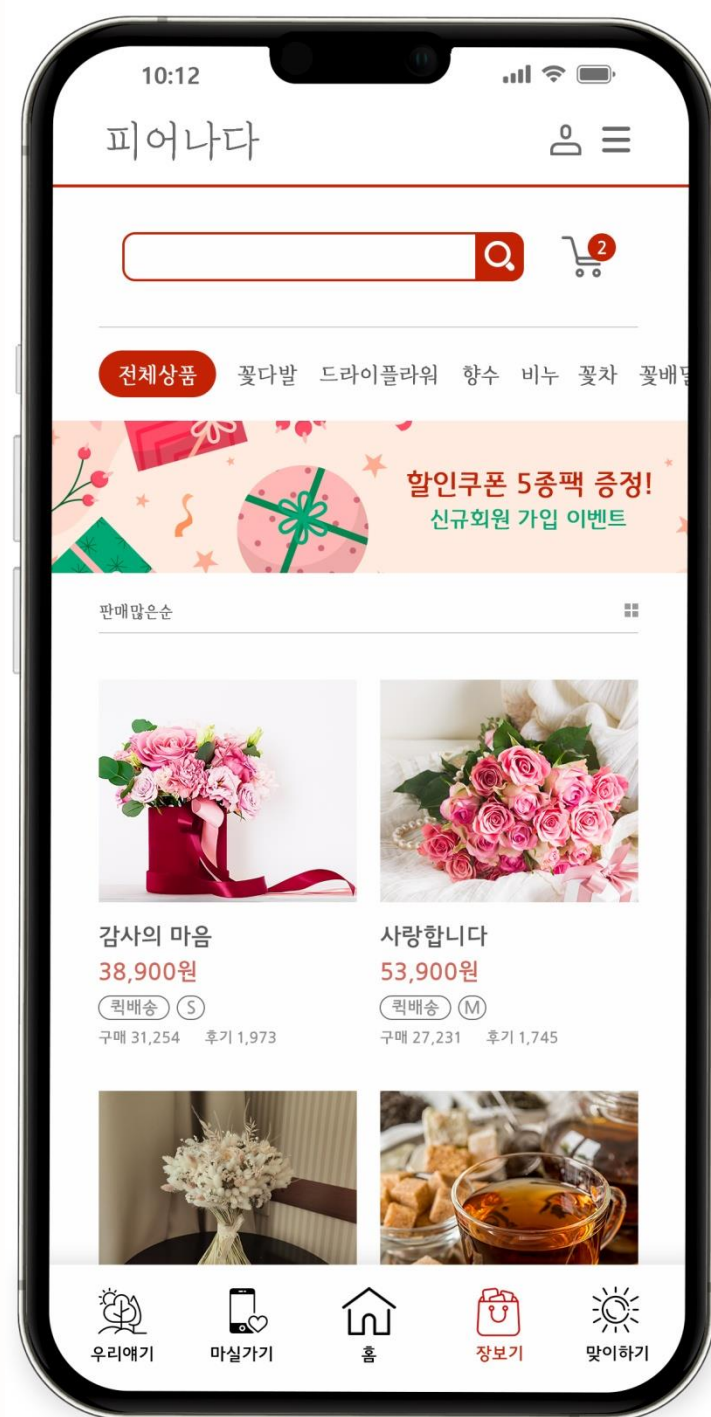
“튤립이네 집에 마실 가자마자 튤립이가 반겨줍니다.
나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안부부터 물어보는 것이 예의겠죠?
튤립이도 절 보고 싶었다고 해주네요.”

“우리의 친구들을 보다 더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,

또는 우리의 친구들을 다른 우리의 사랑 하는 이에게도 소개해주기 위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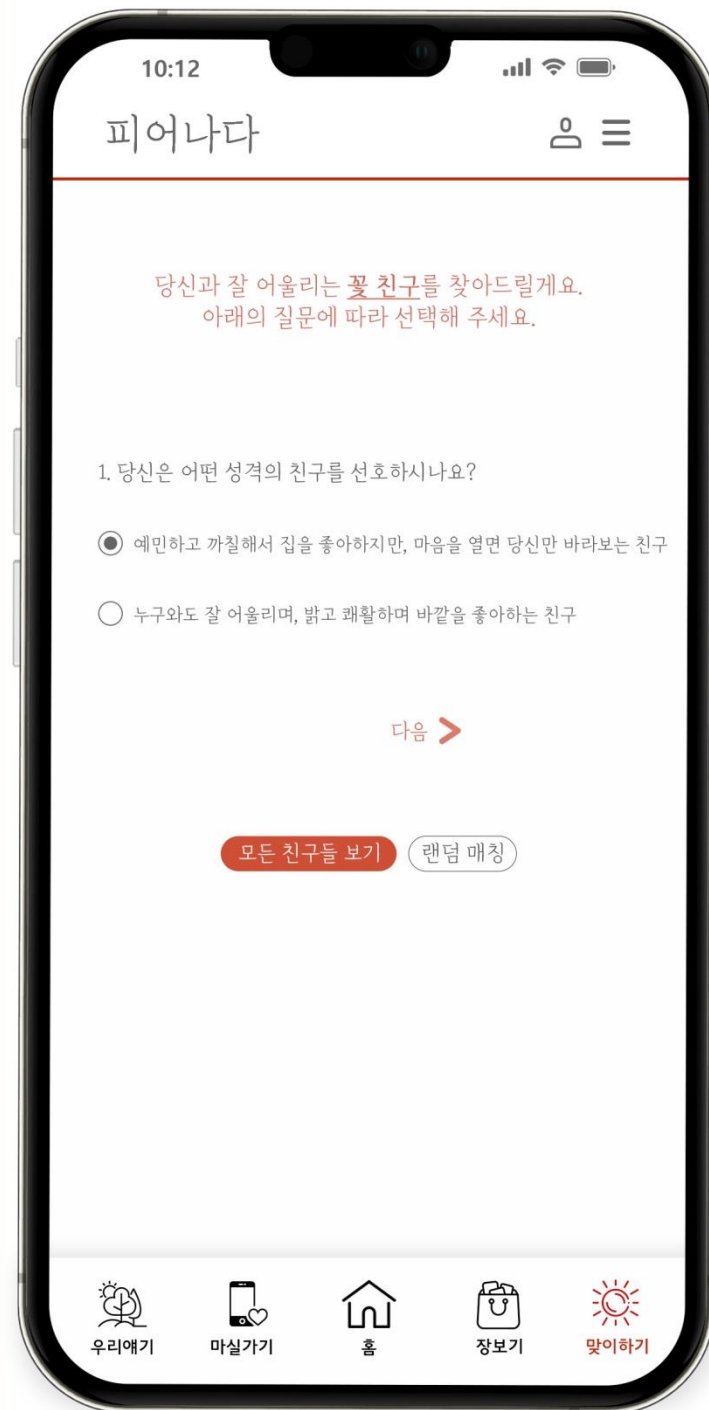
이러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.

좋은 친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건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죠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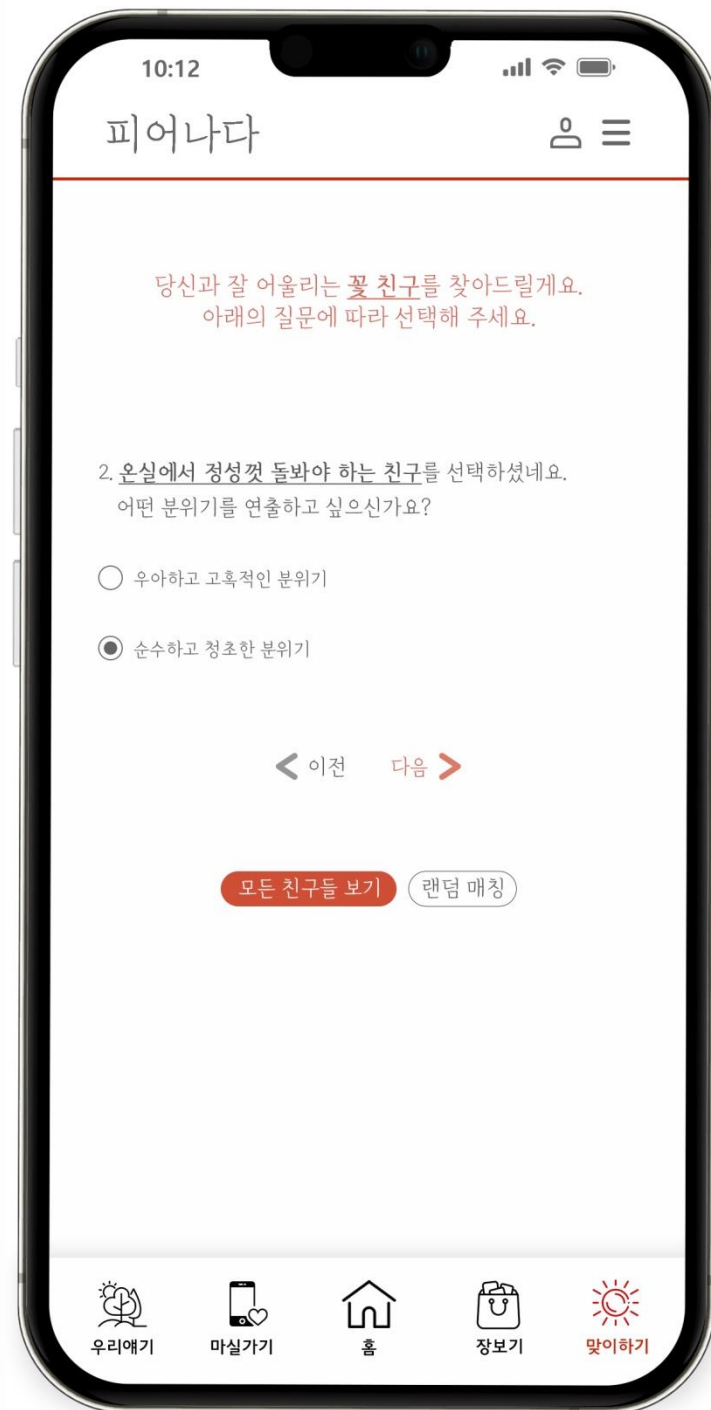
“튤립이에게도 다른 친구를 만들어 주고
싶네요.

저에게도 어울리고 튤립이도 좋아할 만
한 친구를 찾아볼까요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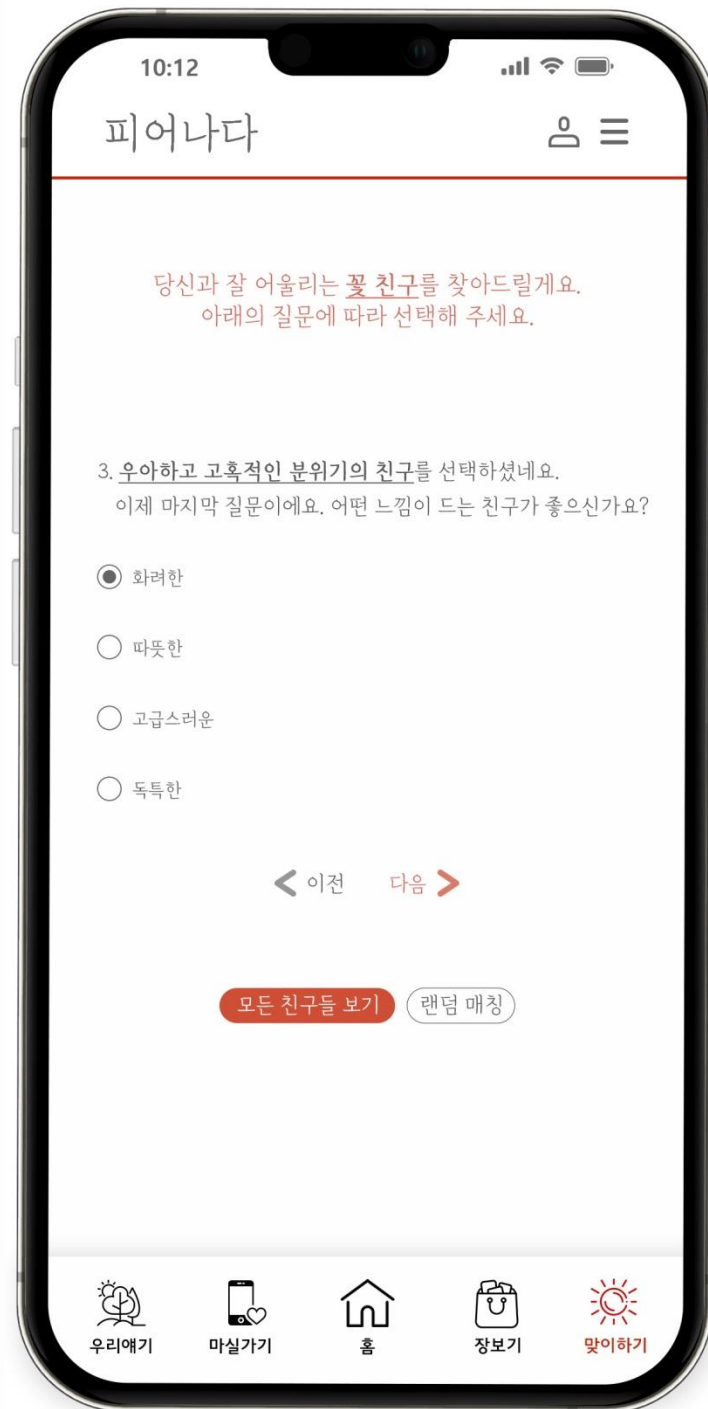
“튤립이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덥고 습한 여름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.

그래서 같은 온실 속에서 함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낼 친구를 소개해 주고 싶어요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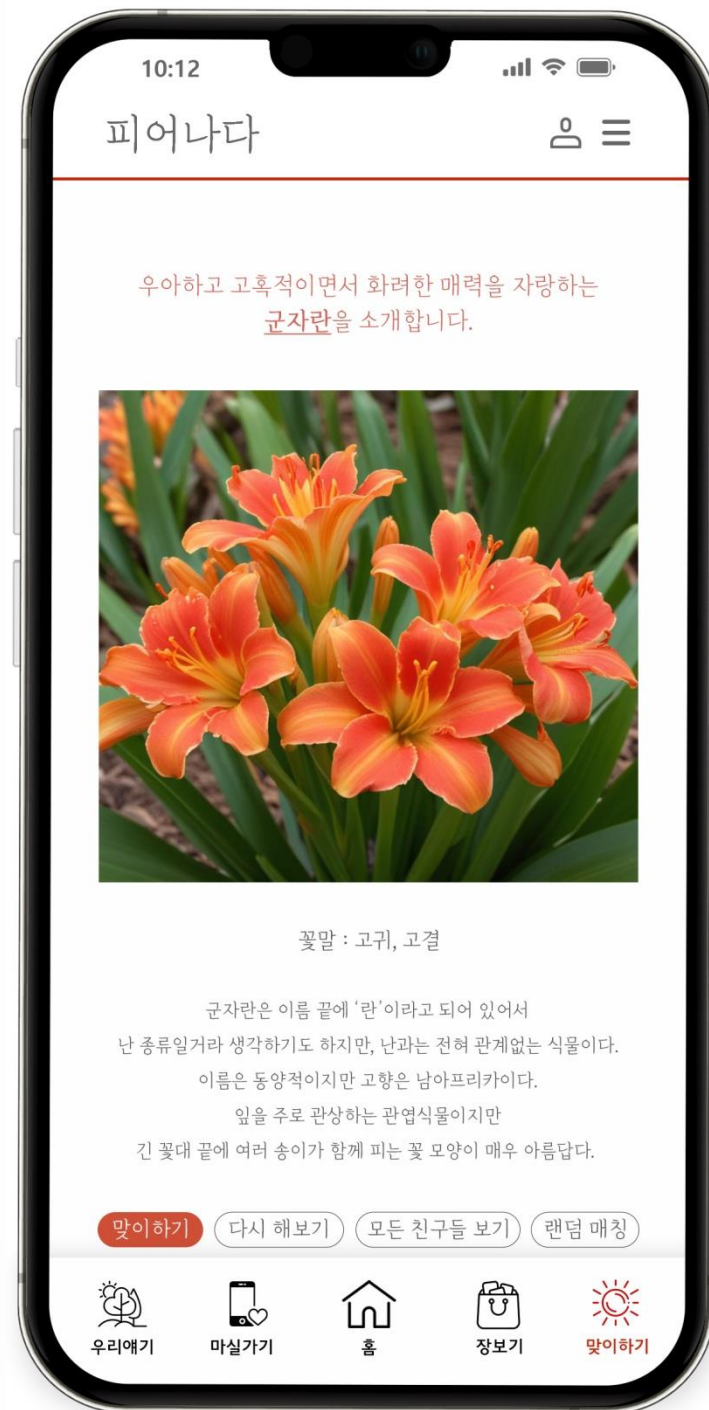
“튤립이처럼 멋진 친구에게는 똑같이
화려한 친구가 좋을 것 같습니다.

서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법을 공
유하며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
다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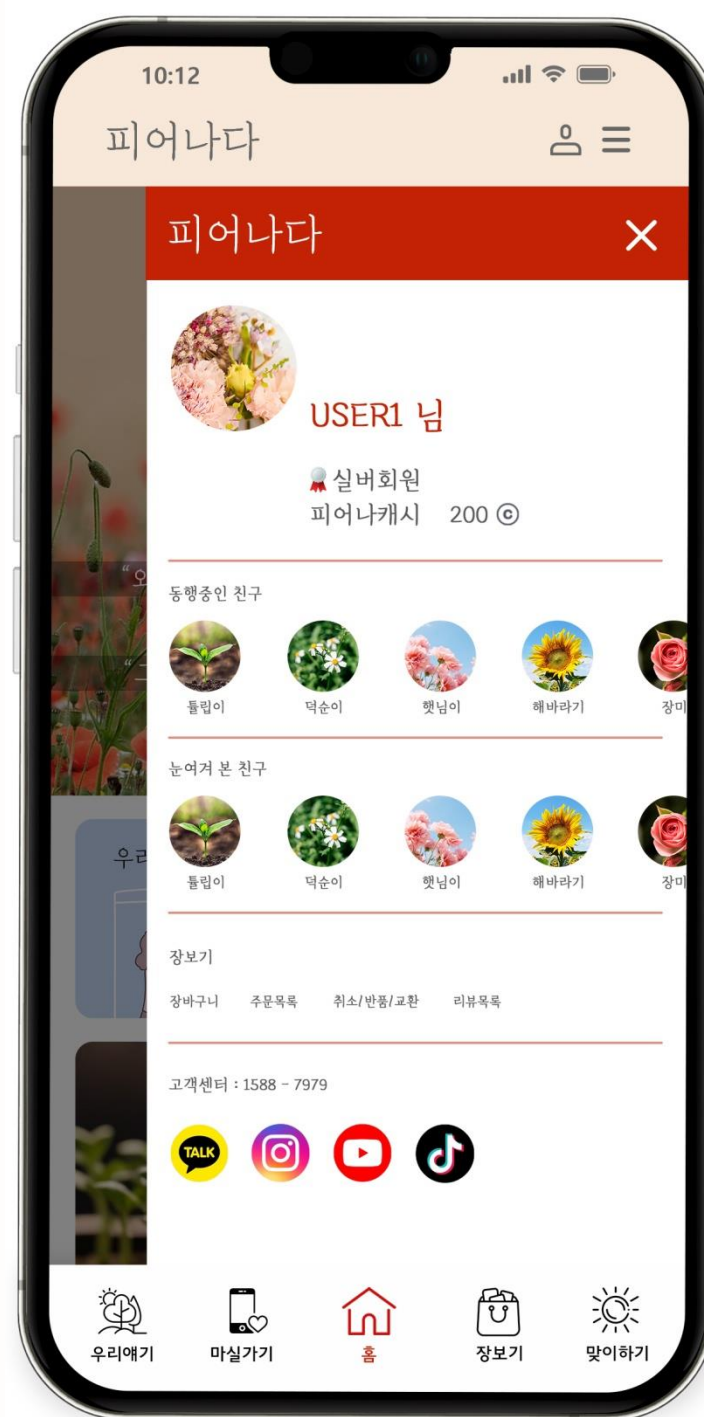
“남아프리카에서 건너온 ‘군자란’이라는 친구를 소개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.

친구라는 것은 대륙이나 종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튤립이를 통해 항상 배웁니다.”



“함께하는 친구가 많이 늘어난 화면입니다.

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눈여겨 본 친구들은 모두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”



“여기서는 마치 택시를 타는 것 처럼
우리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곳을 한
번에 갈 수 있습니다.

매번 튤립이만 챙기니 다른 친구들이
저를 그리워하겠군요.

오늘은 햇님에게 가봐야 할 것 같습니
다.”

